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 분석 - 공학 및 사회계열을 중심으로

이용길* · 강경희**†

*농협대학 겸임교수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The Analysis About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of Undergraduates – In Focus of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 Colleges

Yong kil Lee* · Kyung hee Kang**†

*Adjunct professor, Agricultural Cooperative College

**Special Researcher, Jeju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of undergraduates from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 department. Research object is 310 undergraduates(engineering department: 164 and social science department: 146) from three colleges in Seoul and Cheju. As a result of testing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undergraduates ha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major and grade. Employment stress of undergraduates from engineering department was more serious than undergraduates from social science depart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on the basis of grade employment stress of sophomores was more serious than freshmen. Career decision efficacy of undergraduates from social science department was higher than other group. Career decision efficacy of freshmen was higher than sophomore.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showed negative correlation in correlation analysis. This study implies that course educating program should be specialized according to major and grade.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develop course educating curriculum connecting with major education.

Keywords: employment stress, career decision efficacy, negative correlation

1. 서 론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청년 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취업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대학생들 중 41.5%가 1학년 때부터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경향신문, 2009. 11. 20일자 경제면) 등을 보면 대학생들이 체감하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는 매우 절박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3월 현재 통계청 발표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실업률 4.0%에 비해 청년실업률은 그 두 배가 넘는 8.8%로 집계되었다. 또한 전체 실업자 중 청년 실업자는 39.4%나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경기 침체 등의 국내외적인 변화가 가져온 경제성장 속

도의 둔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인한 고용 수요의 감소 등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 대학 생활 시기는 개인에게 있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하는 시기이고 자아정체감을 정립해가는 중요한 때이다. 그러나 경제·사회적으로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김영상, 2003; 박혜정, 2002; 한정신 등, 1991; 황상하, 1994)에서 진로와 취업의 문제가 대학생들의 겪는 스트레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취업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이고 또한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보아진다.

특히 고용 수요의 창출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 사회에 인적 자원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은 중요한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Received September 28, 2010; Revised March 3, 2011

Accepted March 8, 2011

† Corresponding Author: kkh6554@hanmail.net

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인력 양성은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맞춤형 인력을 공급한다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생들이 미래의 경력 발전과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공 교육과 연계된 진로교육과 직업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승계, 2007)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이 이와 같이 적절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생들이 진로 선택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원준 등(2008)은 각 대학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 연구에서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진로지도에 있어서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역량 강화라는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대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해 느끼는 어려움, 스트레스 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은 여러 연구들(배주운, 2009; 송주현, 2008; 윤훈상, 2005)에서 거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진로지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취업스트레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스트레스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스트레스란 인간의 외적 또는 내적 요구가 개인의 적응 자원을 능가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최해림, 1986)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같은 관점은 스트레스가 개인 심신의 안정을 위해하는 자극 조건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행동체계, 정서체계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므로 인간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분석한다. 한편 Walter는 혐오적 또는 위협적 상황을 지각함으로써 야기되는 생리적 반응이라고 정의했다(김동조, 2003 재인용). 이처럼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개인의 생활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의 개념에 대해 Lazarus(1984)는 자극, 반응,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심리적인 긴장 또는 갈등을 주는 환경내 자극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질병, 일상생활의 고민 등이 스트레스가 되며 이러한 자극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새로운 자극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응하려는 신체적 방어의 틀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은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반응과 일상생활에서의 반응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미경, 2005; 송주현, 2008)이 제기되고 있다.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은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와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인지현상과 정신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견해이다. 따라서 환경내의 자극특성과 이에 대한 반응간의 매개체로서의 개인 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들을 근거로 볼 때 취업스트레스는 학업과 졸업 후의 취업 관련 문제로 인하여 대학 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배주운, 2008). 또한 취업스트레스는 현대사회의 여러 조직 가운데 학교라는 특수한 조직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게는 예외없이 나타나는 것(송주현, 2008)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대학에 재학하는 시기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기간임과 동시에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등 많은 발달과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와 달리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사회의 변화를 직면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스트레스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 진로탐색의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시기에는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취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스트레스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김성경(2003)은 대학 신입생들도 진로 및 취업 분야와 학습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형성됨을 지적한 바 있다. 성영모(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학업과 인간관계, 진로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보고(황성원, 1998)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전공과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스트레스가 전공 영역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I :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전공과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2.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결정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진로결정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Vinokur & price, 1991). 자기효능감은 Bandura (1977)

의 사회인지학습이론에서 제기된 개념으로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론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자기조절 체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Bandura, 1986).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동력,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성공에 필요한 지적·정서적·신체적 근원 등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 활동에 연관시킨 것이 진로결정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연구들(Betz et al, 1996; Taylor & Betz, 1983; 김혜주, 2007)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진로를 조기에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에 필요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했던 경험은 개인의 진로결정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명숙(2002)은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활발히 한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김수리(2004)는 진로결정효능감이 높고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낮은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을 수월하게 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진로결정효능감이 개인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전공을 들 수 있다.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08)에 따르면 각 전공별 취업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각 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진다. 또한 학년이라는 변인도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행 연구(김혜주, 200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의 수행 경험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이 경험한 수행의 내용들이 변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경험의 변화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II: 대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은 전공과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3.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 관계

진로결정효능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이면서

개인의 신념에 관한 개념이다. 취업스트레스 또한 개인적·환경적 특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진로결정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보아진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연구(Bandura et al, 198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상대적으로 생리적, 심리적 스트레스 증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아, 2006). 이같은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스트레스의 한 형태인 취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과 연결한 진로결정효능감간에는 상관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III: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성립될 것이다

I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제주 소재 3개 대학의 공학계열 학생(164명)과 사회계열 학생(146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1학년 학생은 120명이고, 2학년 학생은 190명이었다. 연구대상을 공학계열과 사회 계열 대학생으로 정한 것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ttp://cesi.kedi.re.kr](http://cesi.kedi.re.kr))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2008년 대학 졸업 후 취업률 조사 결과 의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제외하면 이과 분야에서는 공학계열이 71.1%로 가장 높았고, 문과 분야에서는 사회 계열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두 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2. 검사도구

가. 취업스트레스 설문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나희진(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송주현(2008)이 수정한 '취업스트레스설문지'를 활용했다. 이 설문지는 23문항으로 모두 Likert 척도(5점)로 구성되었다. 취업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을 다시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전공계열스트레스의 4개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각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수는 Table 1에 제시했다.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liability and questionss of employment stress questionnaire

하위 영역		문항 수	신뢰도
성격 스트레스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9	.748
가족환경 스트레스	가족 및 가정 환경에 기인하는 스트레스	5	.787
학업 스트레스	취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학업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5	.717
전공계열 스트레스	개인의 전공 관련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4	.742
전체		23	.799

Table 2 Reliability and questionss of career dicision efficacy questionnaire

하위 영역		문항 수	신뢰도
직업정보	관심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	5	.858
목표설정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자신있고 후회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	5	.840
미래계획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5	.853
문제해결	진로상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5	.865
자기평가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	5	.870
전체		25	.806

나. 진로결정효능감 설문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도구로 이 기학과 이학주(2000)의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를 수정했다. 원래 설문지는 9점으로 구성된 Likert척도 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설문지와 같이 5점 척도로 수정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설문지의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써 나타날 수 있는 응답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5점으로 통일했다. 이 검사지는 총 25문항으로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영역당 5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공학계열과 사회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가 2009년 10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334명에게 검사지를 배

부했고 315명이 응답해 회수율 94.3%를 나타냈다. 회수된 검사지 중 설문지 응답이 완성되지 않은 5명을 제외하여 310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과 하위영역 요소에 대해 t-test를 실시했고,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통계분석에는 spss 12.0을 활용했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전공학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분석

전공별로 취업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공학계열이 평균 2.53점, 사회과학계열이 평균 2.27점으로 공학계열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스트레스의 하위 요소 중 가족환경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성격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전공계열스트레스 영역에서 공학계열 학생들이 사회계열 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송주현(2008)의 연구에서는 인문계열이 취업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공학계열, 자연계열, 경상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학계열과 경상계열 스트레스가 인문계열 스트레스보다 낮다고 주장한 연구(황성원, 1998)와 비교해 볼 때 공학계열과 경상계열이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두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두 전공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취업스트레스의 하위 요소별로 두 전공간의 차이도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했다.

Table 3 The result of employment stress t-test according to major

영역	전공	평균	표준편차	t	sig	
전체	공학	2.41	.54	2.131	.032*	
	사회과학	2.26	.63			
하위 영역별	성격	공학	2.31	.65	1.383	.168
		사회과학	2.20	.73		
	가족환경	공학	2.42	.73	-.315	.753
		사회과학	2.45	.88		
학업	공학	2.49	.69	4.222	.000***	
	사회과학	2.15	.71			
전공계열	공학	2.53	.70	2.850	.005**	
	사회과학	2.27	.89			

p: * < .05, ** < .01, *** < .001

특히 학업과 전공계열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학계열 학생들이 학업과 전공에 관련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스트레스와 가족환경스트레스는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데 비해 학업 스트레스와 전공계열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공학계열과 사회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차이가 상당 부분 학업과 전공계열 스트레스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장래문제, 학업 및 진로문제라는 견해(김영상, 2003; 박혜정, 2002)는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진로 및 학업 등 여러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대학생 진로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학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2학년들이 1학년보다 취업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들은 취업스트레스 평균 뿐만 아니라 하위 영역 모두에서도 1학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분석을 실시했다. 두 집단간의 분석이기 때문에 t-test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 평균 뿐만 아니라 하위 영역 전체에 걸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평균값은 Table 4에 제시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선행 연구(송주현, 2008; 황성원, 199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미경(2004)의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와 학년 변인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취업스트레스와 학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연구 대상과 지역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전체에 대해 1학년과 2학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 관련해 두 학년간에 차이가 나타난 원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취업스트레스와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김현아, 2006; 나희진, 2005; 배주윤, 2009; 송주현, 2008)은 전공이나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현주(2002)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진로탐색과 관

Table 4 The result of employment stress t-test according to grade

영역	학년	평균	표준편차	t	sig	
전체	1	2.06	.56	- 7.076	.000***	
	2	2.51	.54			
하위 영역별	성격	1	1.92	.61	- 7.480	.000***
		2	2.48			
	가족환경	1	2.19	.76	- 4.403	.000***
		2	2.59			
	학업	1	2.10	.74	- 4.669	.000***
		2	2.47			
	전공계열	1	2.16	.78	- 4.380	.000***
		2	2.56			

련해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관련 정규과목의 강화를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진로관련 과목을 통해 취업스트레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전공 및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 분석

공학계열과 사회계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공학계열 평균 3.03점, 사회계열 평균 3.30점으로 사회계열 학생들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효능감 하위 영역인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에서도 모두 사회계열 학생들이 높은 효능감을 보였다. 두 집단에 대한 t-test를 실시한 결과 진로결정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했다. 진로결정효능감 하위 영역에 대한 분석에서도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자기평가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문제해결 영역에서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송주현, 2008)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앞서 논의한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결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은경(2001)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문제가 지각되어도 진로결정효능감과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을 조사한 결과 1학년은 평균 3.27점, 2학년은 평균 3.09점으로 1학년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1학년이 진로결정효능감 하위 영역 전체에서 2학년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에 대

한 t-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위 영역에 대한 분석

Table 5 The result of career decision efficacy t-test according to major

영역	전공	평균	표준편차	t	sig	
전체	공학	3.03	.41	- 5.035	.000***	
	사회과학	3.30	.55			
하위 영역별	직업정보	공학	2.93	.49	- 4.267	.000***
		사회과학	3.27	.88		
	목표설정	공학	3.03	.51	- 3.995	.000***
		사회과학	3.27	.58		
	미래계획	공학	2.98	.55	- 4.345	.000***
		사회과학	3.29	.71		
	문제해결	공학	3.11	.59	- 1.738	.088
		사회과학	3.25	.78		
	자기평가	공학	3.09	.57	- 4.116	.000***
		사회과학	3.44	.89		

Table 6 The result of career decision efficacy t-test according to grade

영역	학년	평균	표준편차	t	sig	
전체	1	3.27	.51	3.204	.001**	
	2	3.09	.48			
하위 영역별	직업정보	1	3.24	.92	2.879	.004**
		2	3.00	.54		
	목표설정	1	3.25	.60	2.714	.007**
		2	3.07	.53		
	미래계획	1	3.25	.77	2.611	.009**
		2	3.05	.54		
	문제해결	1	3.28	.67	2.083	.038*
		2	3.11	.69		
	자기평가	1	3.34	.61	1.689	.092
		2	3.19	.84		

Table 7 Correlation of and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가족환경	학업	전공계열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성격	.543**	.500**	.473**	-.129*	-.164**	-.133*	-.111	-.111
가족환경		.440**	.383**	-.047	-.017	-.079	-.097	-.096
학업			.692**	-.214**	-.294**	-.293**	-.240**	-.254**
전공계열				-.231**	-.297**	-.291**	-.160**	-.210**
직업정보					.415**	.451**	.355**	.391**
목표설정						.569**	.524**	.551**
미래계획							.426**	.408**
문제해결								.373**

결과에서도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기평가에서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송주현(2008)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는 대상 학년이 다르기 때문인 것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3.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 영역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Tabl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와 전공계열 스트레스는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모든 영역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진로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취업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선행 연구들(이미경, 2004; 문양일, 2006)의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다. 개인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은미, 2000; 조아미, 2001; 탁진국 등, 2001)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미경, 2004; 문양일, 2006)도 진행되어 왔다.

또한 송주현(2008)의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 중 가족환경 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 요소 중 목표설정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형성됨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특히 학업 스트레스가 진로결정효능감의 전 영역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이해와 학업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진로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은 대학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대학 교육과정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는 진로결정효능감과 관련되므로 진로지도를 별도의 교육 과정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전공교육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많은 대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이 진로교육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 교육과정이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효율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취업스트레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진로결정효능감을 분석하여 진로 지도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학계열과 사회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 분석에서 두 가지 특성은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학년과 2학년 학생들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있어서 전공과 학년이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지도 교육과정을 전공과 학년에 맞게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공별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분야에서 차이가 나고 전공 연계 분야로의 취업의 가능성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진로 지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전공과 연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통해 취업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공과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효능감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효능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 뿐만 아니라 대학생 스스로 진로결정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취업경험 등 다양한 방법이 학년에 맞게 특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우리 사회의 고급 인력을 배출하는 주요한 공급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학 교육과정이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인적자원 관리의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진로 탐색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특성을 토대로 해 전공과 학년에

맞게 특화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사회적으로도 인적관리의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시사점을 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공학계열과 사회과학계열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체 학년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대학생 진로교육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VI. 요약

이 연구는 공학계열과 사회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제주 소재 3개 대학의 대학생 310명(공학계열 164명, 사회계열 146명)이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 검사 결과 대학생들은 전공과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학계열 학생이 사회계열 학생들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분석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효능감은 사회계열 학생들이 높았고, 1학년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에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전공과 학년에 따라 특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전공 교육과 연계된 진로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주제어: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효능감, 부적 상관

참고문헌

1. 강원준, 김종인, 김정원 (2008).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1): 17-36.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 김동조 (2003). *신학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성경 (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4. 김수리 (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김영상 (2003).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 방식에 관한*

-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현아 (2006). **피드백 유형과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와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해주 (2007). **대학생의 전공 만족과 몰입경험이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나희진 (2005).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박미경, 이현림 (2008).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 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연구*, 15(5): 239-259.
 10. 박해정 (2002).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식**.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배주운 (2009).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성영모 (2007). **진로스트레스를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상담의 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송주현 (2008).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차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윤훈상 (2005). **대학생 취업면접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구직효능감과 취업면접 불안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16. 이명숙 (2002).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 지각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 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이승계 (2007). **대학생의 노동경험과 직업선택의 관련성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4(2): 123-141.
 18. 이은경 (2001). **진로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이현주 (2002). **대학교육단계의 효율적인 진로교육 방안 연구-대학생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0(1), 219-247.
 20. 조아미 (2001). **청소년(지도)전공 대학생의 전공관련 직업체험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연구*, 33: 29-46.
 21. 탁진국, 이기학 (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83-488.
 22. 최해림 (1986).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3. 한정신, 김광웅, 김기행 (1991). **타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및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7: 55-76.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24. 황상하 (1994).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황성원 (1998).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6.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27.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28. Bandura, A., Taylor, C. B., Williams, S. I., Mefford, I. N., & Barchas, J. D. (1985). Catecholamine secretion as a function of perceived coping self-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406-414.
 29. Bets, N. E., & Luzzo, D. A. (1996). Career assess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3-328.
 30. Lazarus, R. S. (1984). Patterns and adjustment and human effectiveness. NY: McGraw-Hill Book Co.
 31. Taylor, K. M., Bets, N. E. (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32.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1991). From field experiments to program implementation; Assessing the potential outcomes of an experimental invention program for unemployed pers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 543-562.
 33. 경향신문 2009. 11월 20일자 경제면 : 취업준비, 대학 입학자마자 41%.
 34. 통계청 <http://www.index.go.kr>
 35.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cesi.kedi.re.kr>



이용길 (Lee, Yong kil)

1989년: 연세대학교 학사(사학 전공)
 1998년: 연세대학교 석사(경제학 전공)
 2003년: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기술경영학정책학 전공)
 관심분야: 공학인증, STS

E-mail: yongkillee@naver.com



강경희 (Kang, Kyung hee)

1990년: 제주대학교 학사(생물교육학 전공)
 1999년: 연세대학교 석사(생물교육학 전공)
 2005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학교육학 전공)
 관심분야: STS교육, 인적자원개발

E-mail: kkh6554@hanmail.net